

01 교회소식

교회 개척 31주년

1982년 7월 25일,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개척한 우리 교회는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02 생명의 말씀

중심(中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변개함이 없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 있는 중심을 원하신다.

03 특집I\_ 무안단물

권능이 담긴 사랑의 선물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에서 불임과 사산, 난산 등 위기의 상황 에서 무안단물을 통해 응답받은 간증을 소개한다.

04 특집II\_ 그날의 기억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역사

개척 당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교회, 주현철 목사와 이민선 권사가 체험한 기사와 표적을 들어본다.

# 만민뉴스

제592호 2013년 7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다

## 교회 개척 31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1982년 7월 25일,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개척예배를 드린(사진 1) 우리 교회는 현재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부흥의 원동력은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풀이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있는 말씀과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에 있다.

개척 당시부터 이재록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 오던 비가 멈추고 태풍이 물러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등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처럼 많이 나타났다(4면 참조).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 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발표됐으며, 그 해부터 2004년까지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매년 5월 개최돼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났다.

2000년 3월에는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 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됐다. 무안 단물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는 사람마다 각색 질병을 치료받으며, 가정이나 일터, 사업터에 축복이 임하고 있다(3면 참조).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운집한 파키스탄, 케냐, 인도,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연합대성회를 통해 암, 에이즈 등 각색 질병이 치료돼 무수한 개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서도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권능의 역사는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www.gcntv.org)과 57개 언어로 발간된 이 목사의 신앙서적,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례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돼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다.

지난 31년간 쉼 없이 기도해 온 성도들은 급속한 영적 흐름을 타고 아름다운 영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 더불어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1. 1982년 7월 25일 개척예배
2. 제12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3. GCN 방송 송출실이 있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4.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된 권능의 무안단물터
5. 국내외 성회를 통한 놀라운 치료 역사
6. 다양하고 기이한 무지개
7.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8. 연인원 3백만 명 이상 운집한 '2002 인도 연합대성회'
9. 가나안성전 조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27~28)

#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조심하고 또 명심하지요.

처음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고백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변함없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예전의 모습과 달리 마음이 해이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모임 시간에 늦는다거나 사적인 일로 한번, 두 번 빠지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남보다 자리를 먼저 비워야 할 때에 가졌던 믿음의 마음도, 부끄러운 마음도 이젠 사라져 버리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제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행해 나가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감정을 버리겠습니다.”,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선한 입술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28절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함없는 중심이 정녕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임태케 해 주셨지요.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기쁨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 사무엘을 드릴 때 한나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 아직은 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그녀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변개치 않고 서원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변함없는 중심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 1. 변개함이 없는 중심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변개함 하나만 두고도 삼가 입술을 지켜 가볍게 말을 하지 않기 위해 힘쓰며, 자신이 결정한 바를 임의로 바꾸지 않기 위해

## 2. 타협하지 않는 중심

타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초신자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는 분야가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각 사람이 거쳐 온 환경과 신앙생활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며 자기 좋을 대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주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가정에 마음을 더 쓰지 못해 남편과 자녀로부터 투정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그때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사명으로 포장해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이 속한 교구와 선교회를 돌아봐야 할 때 “내 사명이 우선이다.” 하며 다른 일은 등한시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도 없이 사명을 앞세워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능력을 쌓아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합당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녕히 합당하지 살펴 봐야 합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 뜻이 우선시 돼 ‘과연 어느 쪽이 선일까? 진리일까?’ 궁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입장이나 뜻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좇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와 변명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부족함을 발견해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 3. 영적인 사랑이 있는 중심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자신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늘 상대의 입장이 돼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요. 반면에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된 입장에서 평소 화평을 깨트리는 회원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면을 듣고는 그 회원이 이내 불편한 내색을 합니다. 자신의 권면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지요. 이럴 때 “내가 사랑으로 권면해 줬는데 참 강한 분이시네.” 하며 오히려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말에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질서상 머리인 자신의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정말 그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받는 입장에서 권면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행할 때에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지요. 또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마음 그릇도 함께 넓어지며, 그릇이 커질수록 주변의 모든 일을 넉넉히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변개함이 없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 있는 중심이라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동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b>만민뉴스</b> 등록 다-1840(1989. 7. 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p> <p>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b>만민중앙성결교회</b>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p>	<p><b>교회 오시는 길</b></p>	<p><b>교회버스</b>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p> <p><b>지하철</b>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p> <p><b>시내버스</b>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p>	<p><b>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b></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주일 자녀예배</td> <td>3:00 PM</td> </tr> <tr> <td>금요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일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td> <td>8:00 PM</td> </tr> <tr> <td>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td> <td>9:00 PM</td> </tr> <tr> <td>토요일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토요일예배 [아동부]</td> <td>3:00 PM</td> </tr> </table> <p>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p><b>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b></p> <p>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p> <p>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p> <p>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p> <p>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파키스탄에서도 행복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모세의 기도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기록돼 있다. 2000년 3월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절한 기도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 '무안단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마시거나 바르고 뿌릴 때 놀라운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국내외 수많은 성도가 '무안단물'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다. 특별히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에서 체험한 수많은 사례 중 일부를 게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



## “잉태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스크랏 아시프 성도 (새사도교회)

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임신할 수 없었지요. 2012년 3월 14일, 저는 이웃집에 사는 에스더 노린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무안단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마시면 임신도 가능하다는 믿음이 왔지요. 그 후 무안단물을 마시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파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검진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지요. 2013년 2월 14일, 마침내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무안단물에 담긴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산될 수밖에 없던 아이를 정상 분만했습니다”

라피아 리아캣 성도 (CCCI교회)

2012년 4월, 임신 4개월이었던 저는 자궁막 파열로 양수를 전부 쏟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낙태를 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사이카 아쉬라프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전도사님은 '무안단물'에는 하나님 권능이 담겨 있으니 믿음으로 마시라고 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무안단물을 통해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들었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셨지요.

그 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양수가 없어서 2시간 안에 출산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무안단물을 마신 후 저는 예쁜 딸을 정상 분만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난 딸에게도 매일 무안단물을 조금씩 입에 떨어뜨려 주고 몸에 발라주었더니 건강하게 자라 지난 7월, 첫 돌을 맞이했지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말라리아가 치료됐습니다”

패스터 존 마토 목사 (존웨슬레침례교회)

어느 날, 카라치 시에 사는 사바 성도가 타타 지역에 살고 있는 제게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강청했습니다. 아들 아사나(1세)가 말라리아로 인해 7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는데, 밤새 심한 고열이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었지요.

지난 2월 15일, 저는 아이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 카라치 시로 갔습니다. 무안단물을 먹고 기도해 준 후 돌아왔지요. 그 뒤 사바 성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무안단물을 마시고 기도받은 후 열이 내리고 단잠을 자고 있어요.”라고 기쁘게 말했지요. 아사나는 건강해져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 “난산의 위기에서 순산할 수 있었어요”

샤지아 타리크 성도 (CCCI교회)

2009년 5월 23일, 저는 집에서 아이를 분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산이었지요. 급기야 저는 점차 의식이 흐려지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안단물'을 떠올려 주셨지요.

저는 이내 무안단물을 찾았고, 시누이는 급히 무안단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안단물을 마신 후 저는 곧바로 출산할 수 있었지요. 난산의 위기에서 위험했던 저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안단물을 떠올려 주신 성령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7.28~8.3  
August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1-2
  - 2차 영혼육 교육 6-10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성경적 결혼관 1-2
  - 창세기 강해 44-48, 95, 100
  - 십계명 4-7
  - 요한일서 강해 31-35
-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4-8 (이수진 목사)
  -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미경 목사)
  - 능력 (이희선 목사)
  - 결단 2 (신동초 목사)
  - 성결의 척도 (김승신 전도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5-6 (정구영 목사)
- 2013 여성성경학교 LIVE**
  - 제6회 만민아동 예술제
  - 여성성경학교 '파워 지저스'
  - 여성성경학교 '천국과 지옥'
- 해외성회 시리즈**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2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종합편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1-6, 18
  - 찬양과 경배 (3) 51-53, 61, 72
  - GCN 금요찬양 스페셜 24

워싱턴, 인터넷, 인터넷방송 A/S 문의  
1577-207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48)

# 기사와 표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 31년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100% 믿고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구한 결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과 희한한 능도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근본의 소리를 통해 사람의 자유의지가 꺾어지고 재창조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교회 개척 31주년을 맞아 개척 당시 성도들이 체험한 기사와 표적을 회고해 본다.

## 기사



주현철 목사 (2대대 12교구)

1983년 8월 1일,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후 첫 번째 하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생부 회장이었지요. 수련회 장소가 당시 인천 대부도였기에 출항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 전 날, 우리는 성전에 모여 잠을 잤고 새벽 4시경 새벽예배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니 세찬 장대비가 순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르릉 광광’ 하는 요란한 천둥번개와 함께 창문을 때리는 세찬 비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큰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해 온 수련회였는데, 정작 출발하는 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새벽 4시 30분, 새벽예배가 시작됐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거센 비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예배가 마칠 즈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당시 전도사)은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수련회를 위해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저 비가 멈출 줄 믿습니까?”라고 물으셨지요. 그 순간 우리는 확신에 찬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합심기도를 마친 후, 당회장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면 비가 멈출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아멘” 하는 우렁찬 소리가 성전 안에 울렸지요. 우리는 당회장님을 통해 많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저함 없이 각자의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2층 성전에서 1층 현관까지는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이미 그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983년 8월 1일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새벽예배 후 비를 멎기 위해 기도했던 새벽 5시, 서울의 강수량이

12.4mm였으나 이후 시간대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당시의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간을 확실히 느끼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놀라운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계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주의하는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몇 십 명만 모여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요.

그러나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작은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축복해 주셨지요.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늘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표적



이민선 권사 (1대대 5교구)

1985년 3월, 금요일예배를 마치고 새벽 5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연탄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던 저는 출근을 위해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불을 피우고 새벽 6시쯤 잠이 들었지요.

연탄아궁이가 있는 벽면에 방문이 있었는데, 저는 방문 옆에 머리를 두고 잤습니다. 얼마큼 자고 일어나려는데 몸을 제대로 가

##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가 권능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눌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다가 여러 차례 벽에 머리를 찧고 방문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저는 방문에 걸쳐 쓰러진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다행히 옆방 아주머니가 죽어가는 저를 발견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김형심 권사님(당시 집사)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마침 옆에 있던 학생에게 축 늘어진 저를 업게 한 다음, 뒤를 받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당시 전도사)이 계시는 사택으로 함께 뛰셨다고 하지요.

그 시간이 오후 1~2시쯤이니까 저는 새벽부터 7~8시간 동안 연탄가스를 마신 것입니다. 그 학생은 사택에 도착해 작은 방에 저를 누인 후 당회장의 방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미 당회장님은 1983년 초, 금요일예배를 마치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가는 세 딸과 청년 한 명을 살리신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저를 사택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두드리도 인기척이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침 그 시간은 당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친 후에야 제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스야 물러가라! 모든 몸의 세포 구멍들을 통해 물러가라!”

저는 기도를 받은 후 곧바로 정신이 돌아왔고,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신 분이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코, 귀, 눈과 모든 세포를 통해 검은 연기 같은 가스가 빠져나갔어요.”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눈을 떠보니 제 머리맡에 당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해서 일어나려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몸이 안 움직여요.”라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허가 굳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굳었던 몸이 풀렸고, 이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거동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30여 년 전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혹여 살아났다 해도 후유증으로 비참했습니다. 저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혹 산다 해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권능의 기도로 살아나 지금까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0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광역시 서구 대동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흥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익산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제주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